

“클라이언트에 실익 안기는 변론·자문으로 기업들 사이 호평”

관록 있고 필드에 강한 최강 노동법률가 그룹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노동법 대가’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끄는 지평 노동팀

최근 3년을 돌아볼 때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그 전과는 양상이 판이하다. 우선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2013년 3월 이후로 통상임금 분쟁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등 파견근로가 가파르게 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과 공방이 급증한 것도 최근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과거엔 주로 개별 근로자와 분쟁하던 기업들이 집단적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그 결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동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국내 각 로펌들은 ‘노동팀’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지평 역시 마찬가지다. 지평은 설립 초기(2000년)부터 김성수 변호사(노동팀장)와 같은 노동 전문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서, 노동사건 분야에선 누구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2년 12월, 김지형 고문변호사(전 대법관)를 전격 영입하면서 국내 여느 로펌에도 뒤지지 않을 맨 파워를 갖췄다. 김 고문변호사는 역대 대법관 가운데 거의 유일한 노동법 전문가다. 그에겐 늘 ‘노동법 대가’란 호칭이 따라 붙는다. 이런 김 고문변호사가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평 노동팀의 남다른 경쟁력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양영태, www.jipyong.com)은?

2000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 로펌 중 하나로 ‘사람중심, 진정성, 진취성, 윤리성’을 가치(Value)로 내세우고 있다. 160여 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전문위원 등이 활발히 활동한다. 지평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노동사건 외에도 건설·부동산, M&A, 공정거래, 기업일반·국제거래, 금융·증권, 도산·구조조정, 형사, 지적재산권, 조세, 해상, 자원·에너지, 환경, 정보통신·인터넷, 제약·바이오·의료, 엔터테인먼트·미디어·문화, 가사, 해외업무, 북한업무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다. 지평 관계자는 “법률 도움이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고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글로벌로펌 선두주자로 발 빠르게 폭넓은 해외진출 지속!”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을 지향하는 지평은 그 비전에 걸맞게 해외업무 분야에서 다른 로펌들을 현저히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지형 고문변호사(전 대법관)는 “설립 초기부터 발 빠르게 중국과 동남아 여러 곳에 사무소를 설치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며 “올해 러시아 사무소를 설치해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밝힌다. 이밖에도 두바이, 독일 로펌과 제휴를 활발히 하는 등 중동과 유럽 진출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실제로 지평은 국내 세 곳(본사에 해당하는 서울 충청로와 부산, 순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 외에, 나라 밖으로 중국(상해), 베트남(호지민시티·하노이), 캄보디아(프놈펜), 라오스(비엔티안),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미얀마(양곤), 러시아(모스크바) 등에 사무소를 설치했으며, 아랍에미리트(두바이)에도 변호사를 파견해 활동하고 있다.

◀ 왼쪽부터 이광선 변호사(파트너), 김지형 고문변호사(전 대법관), 김성수 변호사(노동팀장)

▶ 김지형 고문변호사(전 대법관)는 역대 대법관 가운데 거의 유일한 노동법 전문가다. 그에겐 늘 '노동법 대가'란 호칭이 따라 붙는다.



김성수 팀장은 “김 전 대법관이 오신 후로 쟁점이 복잡하고 노동전문가의 도움을 필수로 하는 사건들의 의뢰가 늘어나 우리 노동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한다.

소속 변호사들 뛰어난 면면 돋보이는 지평 노동팀

지평 노동팀 소속 변호사들의 면면이 뛰어나단 점을 입증할 만한 단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평 노동팀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김 고문변호사는 자타공인 노동법 분야에서 국내 최고봉이다. 다른 수식이 필요 없을 정도다. 김 팀장은 변호사로는 드물게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그야말로 바닥에서부터 잔뼈 굵은 베테랑 노동전문 변호사다. 게다가 의사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어 산재 업무에서 탁월한 식견과 노하우를 발휘한다.

이광선 변호사(파트너)도 만만치 않다. 변호사 입문 후 주로 M&A 사건을 대리하면서 인수대상 기업 내 노사문제를 파고들다가 노동전문 변호사로 방향을 선회한 사례다. 현재 고려대에서 노동법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에 앞서 미국 미네소타대학 로스쿨에서도 1년간 노동법을 주로 공부했다.

이밖에도 노동팀 소속 변호사 대부분이 영어는 기본이고 독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다. 또한 노동팀 변호사들은 (이 변호사가 그랬던 것처럼) 연차가 낮을 때부터 M&A 사건에 뛰어들어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이슈를 살살이 찾아내는 훈련을 거듭한다. 따라서 필드에 강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실력이 출중하단 평을 듣는다.

로펌 최초로 영문 노동법해설서 출간한 지평 노동팀

2013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로 빚어진 ‘통상 임금 소송대란’ 현상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의 외국인 경영진이나 국내 기업에 다니는 외국인 근로자는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통상임금’을 영어로 번역하면 ‘Ordinary Wage’ 이고, 정기상여금은 ‘Bonuses’ 이다. 하지만 이 단어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갖는 복잡다단한 의미를 외국인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한 우리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인 사용자든 근로자든 단지 ‘통상임금’ 용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법 용어와 내용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을 영문으로 해설해놓은 문헌 정보는 몹시 빈약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평 노동팀 변호사 15명(국내변호사 12명, 미국변호사 3명)이 공동으로 우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영문으로 해설한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를 발간해 이목을 끌고 있다. 국내 로펌 가운데 영문 노동법해설서를 자체 역량으로 발간한 곳은 오직 한 곳 ‘지평 노동팀’ 뿐이다.

이 책은 단지 법 조문을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노동법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자세한



◀ 김성수 변호사(노동팀장·오른쪽)는 변호사로는 드물게 공인노무사와 의사 자격을 갖춘, 그야말로 바닥에서부터 진짜 굵은 베테랑 노동전문 변호사다. 이광선 변호사(파트너)는 고려대에서 노동법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에 앞서 미국 미네소타대학 로스쿨에서 1년간 노동법을 주로 공부했다.

클라이언트 기업에 '실익'을 안기는 지평 노동팀

지평 노동팀은 다른 로펌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사업주 측에서 소송을 대리

하거나 기업 대상 자문을 수행한다. 즉, 클라이언트 대부분이 '기업 측'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평이 근로자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김 고문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자.

“노동법은 '근로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권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사건 변호사의 역할은 뭘까? 일도양단 식으로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일은 분명 아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주장이 서로 맞닿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노동사건 변호사의 임무다. 가장 경계할 것은 한 쪽 입장을 대변하느라 법리를 왜곡하거나 악용하는 행위다.”

기업 측 입장만 무작정 고려하다 기업에 실익을 안기지 못한 것은 물론, 되레 악영향만 끼친 사례가 심심치 않은 게 사실이다. 김 고문변호사 말대로 노동법 본령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실질적 이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정말로 실력 있는 노동법 변호사 아닐까. 간혹 클라이언트가 어긋난 판단을 한다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바로 잡아줄 필요도 있다. 지평 노동팀이 수임한 사건 가운데 실제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

한 기업의 사내하도급 문제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당시 해당 기업을 실사한 후에 기업 측에 최근 판례 경향을 설명하면서 '일부 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자문했다”며 “기업이 이를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들을 영어로 상세히 소개하고 해설하기도 했다. 따라서 외국인 기업가나 근로자가 이 책을 본다면 'Ordinary Wage(통상임금)'와 'Bonuses(정기상여금)'의 개념은 물론이고, 이 말이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서 갖는 함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고문변호사는 “이 책은 한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인에게 우리 노동법을 정확하고 상세히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김 팀장도 “외국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나 외국 변호사들에게 수준 높은 노동법 이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노동법 각종 단어와 표현들을 영어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 책 한 권이면 한국의 노동법과 판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평 노동팀에 따르면, 책이 발간된 후로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국내 진출을 시도하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법률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 국내 대부분의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경 전자책(e-book)으로도 출간돼 국내 뿐 아니라, 아마존(Amazon.com) 등 해외 온라인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김지형 고문변호사(전 대법관)

kimjih@jipyong.com

[업무영역] 노사관계, 소송·중재, 형사, 임법지원, 지적재산권, 건설·부동산

[학력] 전주고, 원광대 법경대학, 원광대 대학원 명예법학박사

[경력] 2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1기, 해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해외 법관연수(독일 괴팅겐대학), 광주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대법원 대법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현 국제형 조세법률고문

김성수 변호사(노동팀장)

sskim@jipyong.com

[업무영역] 노사관계(노동·신체), 지적재산권, 의료 분쟁, 제약·바이오·의료, 자원·에너지·환경

[학력] 수원고, 서울대 의과대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경력] 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7기, 64회 의사국가시험 합격, 3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서울아산병원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검경수사 전문위원, 국방부 군의무발견추진위원회 위원, 현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서울시 법률 고문변호사, 현 고용노동부 법률자문 변호사,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문위원회 위원

이광선 변호사(파트너)

kslee@jipyong.com

[업무영역] 인사노무, 집단적 노사관계, 해외노사관계, 기업일반, M&A

[학력] 부산동고, 성균관대 법과대학, 고려대 법과대학원 석사(노동법),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L.M.(법학석사), 고려대 법과대학원 박사과정(노동법)

[경력] 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5기, CJ주식회사 법무팀 근무, 현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비상임 이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 변호사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클라이언트인 기업을 안정화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최근 들어서 여타 로펌들과는 차별화된, ‘지평 노동팀’만의 성향과 마인드를 높이 사서 자문을 의뢰해 오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라 한다.

이 변호사는 “이렇게 기업에 실익을 안기는 자문과 변론을 하는 곳은 국내에서 법무법인 지평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다”며 “대형 로펌들은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해 낸다”고 힘주어 말한다.

‘초여름 녹음 질 무렵 싱그러움’ 연상케 하는 지평 노동팀

다른 로펌들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지평의 남다른 점은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로펌’, ‘구성원이 행복한 로펌’,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3가지를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점이다.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로펌’이란 모토와 관련해 김 팀장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실력과 열정을 갖추려 한다”며 “그 이유는 고객 만족이 구성원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구성원이 행복한 로펌’이란 뭘까? 김 고문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경우 질서와 규율이 엄격한 경우가 흔한데 지평은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선후배 간에 자유롭고 격의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다”며 “법인 내부 분위기는 마치 ‘초여름 녹음 질 무렵 싱그러움’을 연상하게 한다”고 표현한다.

로펌이론 드물게 사회공헌 활동을 강조하는 것도 눈에 띈다. 지평은 설립 첫해(2000년)에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공익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 사회적경제, 기업공익, 국제인권, 아동청소년 등 여러 분야에서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등 갖가지 공익활동을 펼쳐 왔다. 이 공익위원회는 현재 ‘사단법인 두루(www.duroo.org)’로 발전해서 시민사회단체, 공익단체 등 NGO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이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김 고문변호사가 맡고 있다. 그는 두루 이사장 외에도 지평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노동법연구소 해밀’ 소장을 맡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측과 백혈병피해자가족단체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삼성전자 기부로 공익법인 설치’를 뼈대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내 화제가 됐다. **노법**

신일용 기자 shiniy@elabor.co.kr